



[보도자료]

## 제 75 차 IATA 연차총회 서울에서 개최

- 전세계 항공산업 리더들 한자리에 모여 -

서울 (2019년 5월 29일) - 전세계 항공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서울에 모인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이하 IATA)는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 75 차 IATA 연차총회와 국제항공교통서밋 (WATS)에 290 개 회원 항공사, 제조사,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고위 인사 등 천여명이 넘는 항공산업 리더 및 언론매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치러지는 최대규모의 항공업계 행사이다.

“앞으로 며칠간 서울이 세계 항공운송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Alexandre de Juniac) IATA 사무총장 겸 CEO 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항공사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올해는 항공업계가 10년 연속으로 흑자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가 상승, 무역 전쟁, 그리고 시장 내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잉 737MAX 이슈도 여전히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항공산업 역시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에, 본 연차총회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일 오전 열리는 총회 개막식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올레타 부르크 (Violeta Bulc)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교통운송 담당 위원이 참석하여 기조 연설을 한다.

연차 총회에 이어 2일 오후부터는 국제항공교통서밋이 ‘미래를 향한 비전 (Vision for the Future)’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다.

국제항공교통서밋의 하이라이트는 CEO Insight 라는 패널 토론 코너로, 싱가포르항공의 CEO 고춘풍(Goh Choon Phong), 제트블루항공의 CEO 로빈 헤이예스 (Robin Hayes), 플라이비 항공의 CEO 크리스틴 오미에르(Christine Ourmières-Widener), 루프트한자 그룹의 CEO 카르스텐 슈포어(Carsten Spohr)가 패널로 참여한다. 본 토론 코너는 CNN 의 리처드 퀘스트(Richard Quest)가 사회를 맡는다.

주요 의제는 향후 20년간 두배 이상 증가폭이 예상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대비책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의 디지털화, 인프라 수용 능력, 지속가능성과 미래 항공인력 육성이 중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기간 중에는 ‘다양성 및 포용성 상(Diversity and Inclusion Awards)’이 최초로 수여된다. 그간 항공업계에서 성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이에 기여한 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연차총회 프로그램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pdf)

##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밝은 미래

“6 개의 회원사가 활동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 75 회 IATA 연차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838,000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GDP 중 476 억달러 (56 조 6200 억원)를 창출하고 있다. 2036 년이면 한국이 세계 10 대 항공여객 시장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올바른 정책적 뒷받침만 있다면, 항공산업은 20 년 내 150 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1,380 억달러 (164 조 1,500 억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드 주니악 사무총장은 말했다.

올해로 제 75 회차를 맞는 IATA 연차총회 참가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매체는 참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

## IATA 소개

-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는 1945년 세계 각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모여 설립한 국제협력기구이다.
- IATA는 현재 120개국의 290개 IATA회원 항공사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 항공 교통량의 82%를 책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회원 항공사로 활동하고 있다.
- 캐나다 몬트리올과 스위스 제네바 두 곳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 5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IATA는 국제항공업계와 정책 개발, 규제개선, 업무 표준화 등 항공산업 발전 및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회원 항공사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감사 프로그램(IOSA)을 운영하며 안전 운항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 IATA의 공지사항과 정책, 기타 항공산업 관련 정보는 IATA 공식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iata>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디어 문의

### [IATA]

Albert Tjoeng / Assistant Director, Corporate Communication AP / [tjoenga@iata.org](mailto:tjoenga@iata.org)

[국내 홍보 대행사 케첩] [SKR-IATA@ketchum.com](mailto:SKR-IATA@ketchum.com)

신혁수 사원 / David Shin, Account Executive / 02-559-9603

김승윤 사원 / June Kim, Account Executive / 02-559-9627

김성이 부장 / Sunny Kim, Account Director / 02-559-9621